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부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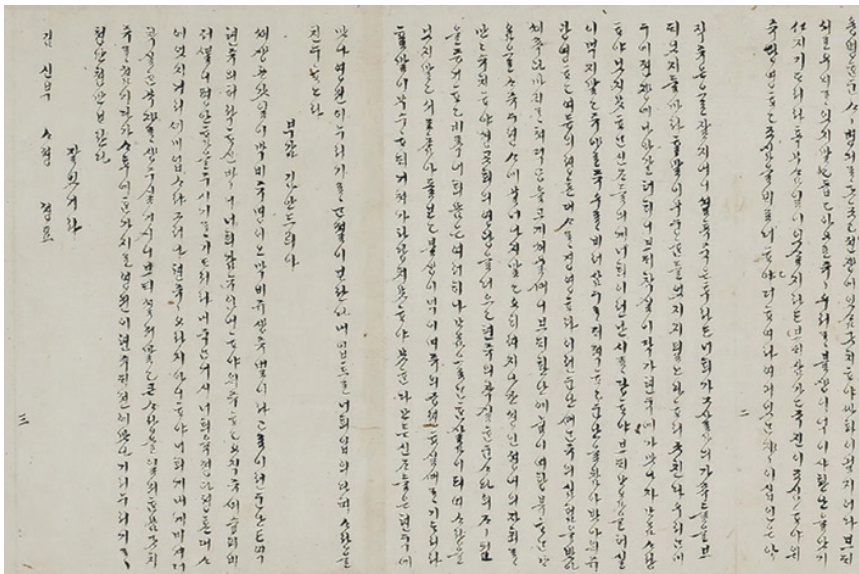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⑥

전번 호에 이어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대조역주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9월호는 순교성월[김대건 신부 9월 16일 치명] 특집으로 김 신부의 심문과 치명[순교]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건 신부, 서울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다 (1846년 6~9월)

체포된 후 김대건 신부는 해주 감영을 거쳐 서울로 이송되었고, 포도청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심문을 받았습다. 심문 과정을 목격할 수 없었던 신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고, 시복재판에 나온 증인들도 대부분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진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몇몇 증인들은 전반적인 심문의 분위기라든가 옥 중 상황, 일부 심문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회유문(일부)

김 마리아[89회차 증인]는 김 신부가 포도청에 갇혔을 때 신발이 없자 자신의 조부가 짚신을 삼아 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마리아의 조부는 관찬 자료에 나오는 김중수(金重秀, 78세)와 동일 인물로 보이며, 서빙고에 살다가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후 붙잡혀 함께 포도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마 포도청으로 이송될 때 김 신부가 신발을 잃어버리자 김중수가 짚신을 삼아서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바올라[59회차]는 김대건 신부가 포도청 옥에 갇혔을 때 ‘성교(聖敎, 천주교)의 말’[교리로 권화(勸化)하자 비신자들[관장과 포졸]이 옳다 하면서 김 신부를 죽이는 것을 아깝게 여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서 요아킴[72회차]의 증언에도 확인됩니다. 박 가이아나[91회차]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진술했는데, 포도대장이 김 신부에게 호의를 베풀어 대청마루에 올라와 책을 읽게 하고 교리를 강론하게 했으며, 심지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 베드로[100회차]는 김 신부를 아낀 포도대장의 이름이 이응식[관찬 사료에 ‘李應植’이 확인됨]이며 조선 정부 내의 여론도 김 신부를 살려두자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심문 내용에 대해서, 원 마리아[93회차]는 관장이 김 신부의 재주를 알고자 조선의 팔도지도(八道地圖)를 그릴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신부가 보천하지도(普天下地圖, 세계지도)도 그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베드로[100회차]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으로 보내려다가 압수된 주교의 편지를 포도대장이 내놓으면서 김 신부의 서체와 왜 다르냐고 묻자 김 신부는 자신이 쇠뿔[뿔]으로 썼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슬기롭게 넘어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김대건 신부의 1846년 8월 26일 자 옥중서한에서도 확인됩니다.

임 루치아[68회차]와 정 바르바라[66회차]는 김 신부가 감옥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는데 자신들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임 루치아는 서한 자체를 외운다고 했고, 정 바르바라는 일부 내용을 증언 장소에서 직접 외우기까지 했다. 김성서[72회차]는 김 신부가 이 편지를 신골[신을 만드는 데 쓰는 표본] 속에 넣어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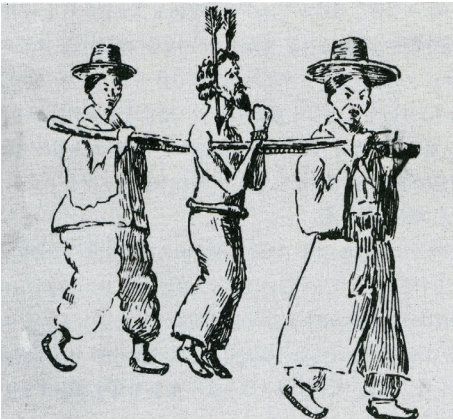
이 편지는 ‘회유문’으로 알려진 김 신부의 마지막 한글 편지입니다. 이 테레사[61회차]는 자기 집에 그 편지 베낀 것이 한 장이 있다면서 시복재판 판사인 뮈텔 신부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증언 당시(1884년)까지 남아 있던 ‘회유문’의 필사본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건 신부는 심문을 받는 중에도 형벌이 심하지 않았고 그의 재능을 아껴서 살려주려는 분위기가 조선 정부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베드로[100회차]의 증언에 의하면, 대신 중 하나가 국법대로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성서[72회차]의 증언에도, 권 정승이 나서서 김 신부를 풀어주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사형 판결로 결정되었다고 나옵니다.

당시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사학(邪學)의 괴수’를 살려두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관찬 사료[『일성록』 1845년 7월 25일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김대건 신부, 치명(致命)을 통해 새남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다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음력 7월 2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목숨을 바침(致命)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김 신부가 치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치명 과정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증언 중에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김 신부보다 3일 뒤인 9월 19일 새남터에서 치명한 현석문 가롤로가 김 신부와 같은 날 치명했다는 내용을 신자에게 전해 들은 김 베네딕타의 증언[20회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해 듣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김대건 신부가 그린 군문효수형 장면



[그림] 김대건 신부의 순교 [조희성 화백 그림]

시복재판에 나온 증인 중 치명 과정을 직접 목격한 이는 박순집 베드로[86회차]뿐이었습니다. 사형장인 새남터로 갈 때 길에서 김 신부를 목격한 이는 박순집 외에 변 아나스타시아[35회차]와 박 가이아나[91회차]가 있었지만, 그 두 명은 처형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유 바르바라[38회차]와 함 막달레나[51회차], 김 도로테아[62회차], 최 베드로[100회차], 이 마리아[102회차]는 치명 사정을 직접 목격하여 이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사형장에 갈 때 상투가 풀어진 상태로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들것에 묶여서 갔다는 점은 세 명의 목격자[박순집, 변 아나스타시아, 박 가이아나]의 증언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덧붙여 박 가이아나는 김 신부가 굵은 베로 짠 여름용 훌바지[삼승 고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소문 밖부터 사형장까지 따라갔던 박순집은 도중에 군인 한 사람이 김 신부의 상투를 다시 짜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박 가이아나는 김 신부가 사형터에 간 날, 즉 치명일이 (음력) 7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관



찬 기록에 확인되는 치명일인 9월 16일(음력 7월 26일)과는 하루 차이가 나지만, 시복재판 증언 중에서 날짜가 언급된 것은 박 가아이나의 증언이 유일합니다.

치명 현장에 있었던 박순집은 김 신부가 군문효수형을 받을 때 매우 기뻐하는 모양이었고 칼을 받을 때 두 번 만에 머리가 베어졌다고 간략히 진술했습니다. 최 베드로는 전해 들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신부가 사형장에서 군사에게 “내가 천당에 올라가 이렇게 볼 것이니 너희도 성교(聖敎)를 봉행하여 내 뒤를 따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에게 전해 들은 증인들도 대부분 치명 과정을 간략하게 진술했는데, 김 신부의 치명을 목격했던 이들은 용인 굴암에 살던 이 마르코[김 토로테아의 증언], 김 신부의 5촌 김 요한[이 마리아의 증언], 김공숙[김 신부의 5촌]과 김 프란치스코[시복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프란치스코와 다른 사람][이상 최 베드로의 증언] 등이었습니다. 이중 김 신부의 5촌 김 요한과 김공숙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전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김 신부가 치명했을 때 포도대장과 다른 관장들이 “아까운 양반을 죽이니 원통하다”는 말을 했다고 임 베드로[88회차]가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 신부가 치명했을 때 기이한 현상[이재]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신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김 가타리나[5회차]는 김 신부가 치명할 때 상서로운 기운[瑞氣]이 새남터의 공중에 무수히 섰다는 말을 비신자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루치아[68회차]와 오 바실리오[70회차]는 1846년 음력 8월 (초승) 무렵에 비가 쏟아지고 천둥소리가 요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날이 김 신부의 치명일이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두 증인이 언급한 날짜인 음력 8월 초승은 실제로 치명한 음력 7월 26일과는 차이가 있고 모두 전해 들은 소문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한국인 사제로서 젊은 나이에 치명한 김대건 신부를 안타까워했던 신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하고 전문연구자의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9호 간행 예정

- 학술논문과 보고서, 연구소 휘보 등을 실은 『교회사학』19호를 2021년 9월 30일에 간행할 예정입니다.